

# 광주·전남지역 오늘부터 장마 영향권

광주·전남 지역이 26일 오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26일 오전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남·서해안부터 시작돼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뒤 27일 오후

내일 오후까지 광주·전남 10~60mm 비 예보

최대 80mm 이상 비...29일까지 장마전선 재북상

후계 모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이 80mm 이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하했다가 29일 다시 북상하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안·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 동구, 광주 최초 심뇌혈관질환 안심마을 추진

광주 동구가 심뇌혈관질환 홍보와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안심마을' 사업을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이란 심근경색·허혈성질환·심장정지·심부전·부정맥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동구의 특성상 주요사업인 2위를 차지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동구는 지역 내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에게 친숙한 슈퍼마켓, 음식점을 활용해 심혈관질환 관련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안내·홍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 서구, 소비자가 변동없이 종량제 판매이윤 인상

광주 서구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변동없이 종량제 봉투 판매이윤을 인상한다.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시 얻게 되는 이윤은 판매가격의 평균 8.0%로, 2007년 7월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이 없어 판매수수료 현실화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봉투 도매가격을 인하하여소비자 판매가 변동없이 판매수수료 요율을 9.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슈퍼마켓·편의점 등 556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는 추가이윤이 발생하지만 소비자 판매가의 변동이 없어 주민들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남구, 물가인정 기여 착한가격 업소 점검·발굴

광주 남구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 업소 선정과 착한가격 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관내 일반 음식점과 이·미용실, 커피숍 및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착한가격 업소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남구는 지난해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47개소를 비롯해 올해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가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착한가격 업소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 북구, 청년활동 포인트제 시행

광주 북구가 지역 청년들을 구정에 적극 참여시키려 한다.

북구는 "8월부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정에 참여한 청년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주는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활동 포인트제는 교육, 간담회, 캠페인 문화행사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참여 사업에 따라 5백 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 별도의 수당을 받고 참여하는 경우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 사업 참여 후 포인트 적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3만 포인트 이상이 적립되면 구정으로 방문해 최대 10만원까지 문화상품권으로 환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광산구,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25일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4개 아파트와 구청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광산구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 아파트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사업기간 동안 전자결재시스템을 성실히 사용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다음달 초부터 4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보급, 5개월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광산구는 전자문서 확산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에서 아파트 전자결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주)울소프트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임형택 기자



참여자치21, 광주시정 1년 평가기자회견. 광주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7기 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용섭 시장 "광주 수역 대회 성공개최 역량 집중"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17일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행정역량을 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수영선수권대회는 참가 국가와 선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과 광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음식, 정결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폭염과 테러 등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르는 데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수영대회 기간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매일 열리는 국악 상설공연을 비롯해 다양한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자사고 권한, 교육부→교육감 이양해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고등학교 서열화 완전 해소돼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25일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서열화는 완전히 해소돼야 하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지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 공격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교육자차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라며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금수저·은수저 논란'이 더는 퍼지지 않고 고교 서열화, 귀족학교 논란도 없애기 위해서 특권학교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광주시, 지하철역사 18곳 공기질 개선사업 실시

광주시는 2020년까지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지하철역사 18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이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된다.

자동측정망은 7월부터 이용 승객이 많은 역사 순서대로 8곳(남광주, 문화전당, 금남로4가, 생촌, 운천, 상무, 광주송정 등)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측정자료는 실내공기질 자료 공개 서비스(한국환경공단 운영)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며, 도시철도공사에서 측정자료를 활용해 역사 내 공기질이 상시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지하철역,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150→100㎍/㎥,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은 100→75㎍/㎥로 각각 강화됐다. 또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70→50㎍/㎥, 35㎍/㎥로 확대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유지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경로당 1318곳에 공기청정기 1976대를 보급했으며,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을 활용한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7년	1.7배	2.1배	2.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지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